

돌봄의 역설

서보경 지음, *Eliciting Care: Health and Power in Northern Thailand*

(돌봄 유도하기: 북부 태국에서의 건강과 권력)(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20)를 읽고

김지은 리즈대학교 일본학 조교수

돌봄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며 또 여느 때보다 더 큰 부담으로 많은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서 이 책이 던지는 화두는 더 엄중하게 다가온다. 사람들이 병과 고투하며 삶의 위기를 겪어 내는 순간들을 밀착하여 보여 주는 의료인류학 민족지를 읽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독자로서 또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절실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아픔과 고난의 세계로 함께 들어섬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목에 있는 ‘돌봄 유도하기(eliciting care)’의 한 실천적인 시도로서도 읽혀진다. 우리는 저자가 이끄는 대로 병원의 침상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로, 허물어져 가는 판잣집으로 인도되어 돌봄을 요하는 몸과 삶의 현존(presence)을 느낀다. 그리고 자문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타자에 대한 돌봄의 필요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5쪽)?

저자의 박사논문 연구에 토대를 둔 이 책은 태국에서의 에이즈 감염인들의 의약품 접근권에 관한 석사 연구(2008)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의료권 문제에 천착해 온 저자의 내공이 여실히 느껴지는 책이다. 2002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태국에서 어떻게 돌봄이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의제와 실천으로서 재정립되어 가는지에 주목하여 2010년부터 18개월이 넘는 장기 현지조사를 거쳐 민족지로 엮어 냈다. 조사의 주 거점이 된 곳은 북부 치앙마이 시 외곽에 자리잡은 반팻(가명) 지구 공공병원으로서 도시와 지방,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의 경

계에 위치해 여러모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1980년대 후반 작은 보건소에 불과했던 곳이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확장되기 시작해 현재는 11만 4,000 인구의 반쯤 지구를 포괄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60병상의 입원실, 외래환자 진료소, 치과, 정신과 상담실, 물리치료실, 응급실, 약국 등은 물론, 인근에서는 드물게 신생아집중치료실까지 갖춘 규모급 시설로 거듭났다. 사설병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가난한 주민들에서부터 무국적과 무보험 상태의 산이주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에서 저자는 병원의 의료진, 환자 및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보편적 의료권이라는 이상이 예술적이며 일상적인 돌봄의 실천으로 현실화되는 현장을 생생히 책에 담았다. 저자는 더 나아가 병원에 머물지 않고 환자들의 동선을 따라 마을로, 집으로 발을 옮기면서 이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회복하거나 투병하며 삶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 역시 섬세하게 기록했다. 이와 같은 총체적 접근으로 돌봄이 신체 및 의료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정동적(affective)이며 영적인 차원까지 아우르는, 삶을 지탱하며 풍요롭게 하는 상호관계성들을 소환하는 과정임을 심도 있게 보여 준다.

이 민족지적 기술의 이론적인 중추를 이루는 것은 책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 ‘돌봄의 유도’라는 개념이다. ‘돌봄(care)’의 개념화 작업은 페미니스트 철학, 의료 인류학, 과학기술사회학(STS)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왔는데, 이는 종래 흔히 여성에게 전담되어 온 감정 노동과 관계적 실천들을 가시화하고, 더 나아가 서구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중시되어 온 자율적 개인의 이상을 넘어서 상호의존성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전제로 한 관계적 존재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모색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후 돌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취약한 이들의 삶을 보살피는 감수성과 그를 위한 자원의 분배가 건강, 재생산, 사회 복지, 지식 생산, 생태계 등 인간의 생물학적이며 사회정치적인 삶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이 더욱 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의료 인류학에서는 특히 돌봄을 단지 도덕적인 선으로 규정하기를 벗어나, 돌봄이 내포하는 딜레마 및 억압과 폭력을 지적하면서, 돌봄의 다면성을 드러내는 연구들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 책 역시 그러한 계보를 잇는데, 돌봄이 개개인들 간의 실천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매개되는 과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8쪽). 미셸 푸코의 근대 통치권력론이 생물학적 생이 통치의 핵심 영역으로 끌여들여지는 방식을 논의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면, 근래의 의료인류학 민족지들은 이와 같은 생명정치적 인구 관리와 규제가 돌봄의 형태로도 발견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생명정치적 돌봄은 살려야 할 삶과 죽도록 내버려 둘 삶을 차등적으로 관리하면서, 보호와 규제라는 명목으로 폭압적 감시나 온정주의적 개입을 수반하기도 해, 늘 불확실성과 양가성을 띠기 마련이다. 저자의 ‘돌봄의 유도’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돌봄과 생명정치의 관계에 착목한 최신 의료인류학의 이론적인 작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돌봄을 받는 이들의 행위성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현존을 인정(recognition)받고 타자들을 자신과 상호 의무(mutual obligation)로 묶인 관계로 끌어들이는가를 집중조명한다(13~14쪽). 즉 돌봄이 일방적인 시혜나 어떤 명문화된 도덕적 원칙의 적용이 아닌, 돌보는 측과 돌봄을 받는 측 모두가 ‘상호적 되어감의 과정(a process of mutual becoming)’(15쪽)이라는 존재론적인 주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도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돌봄을 조명했을 때, 돌봄이 생명정치적 관리의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형식들(forms of life)을 키우기도 하고, 미약할 지언정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론적이며 사회정치적인 전환의 잠재성을 지님을 탐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돌봄의 실천적인 잠재성을 지적한 안네마리 몰의 선구적인 작업(2008)의 뒤를 잇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 의료권이 정치적 격동 속에서 국가의 주변부로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태국의 시대적 맥락에서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비교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흔히 병원과 의료진, 노년층이나 만성병 환자들에 치중된 기존 돌봄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마을과 집의 일상적이며 의례적인 공간까지 포괄하며 임신부와 신생아들을 둘러싼 돌봄의 관계들을 집중조명하고 정령과 혼령 등 비인간행위자들로까지 시야를 넓힌 점 역시 눈에 띈다.

그러면 돌봄은 어떻게 유도되는가. 저자는 유도를 위해서는 먼저 물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현존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가 선행됨에 주목한다. 책은 이 시도들을 병원 원장과 의료진의 보편적 의료 실현에의 야망(1장), 일반 환자들의 국민의료

보험에 대한 사의와 부채의식(2장), 산 임신부들의 산전 검진(3장) 및 산후 조리
와 육아(5장), 간호사들의 신생아집중치료(4장), 영적인 의례(6장)에 걸쳐 다각적
으로 조명했다.

여기에서 돌봄이 다층위의 순환 회로를 따라 다방향으로 유도된다는 점이 중
요한데 이는 특히 돌봄과 통치의 밀접성을 살핀 1장(The Government of Care)의 분
석에서 두드러진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상 태국 시민권과 결부되어 태국
국적이 아닌 소수 민족들이나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수 보험의 사
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 반쯤 병원은 높은 비보험환자 비율로 재정 적자를 겪
고 있음에도 병원 원장에서부터 현장의 의료진까지 환자들의 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병원으로서 모두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내
세운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30쪽). 이 변두리 지역의 지구 병원에서 신생아집
중치료실을 구비하게 된 것도 조산아 비율이 유난히 높은 이곳에서 마땅히 이
송될 곳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스러져가는 어린 생명들을 기어코 살려야 한
다는 병원 원장의 각별한 헌신 덕분이었다. 보건성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인근
병원들로부터 모금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마련한 병원 원장의 호기 어린 “우
리가 정부입니다.”라는 단언은 의료 최전선에서 정부의 대리자로서 보편적 의
료권을 달성할 책임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태국어로 타인
을 돌보기(*dulae*)의 의미체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건강과 안녕 유지
하기, 보호하기, 영양 제공하기(*nourish*), 관리하기, 지배하기, 제약하기 등으로 이
미 통치의 기능을 포괄하며, 특히 복합동사 *pokkbrobng dulae*(통치하고 돌보다)로
쓰였을 때는 공무원의 권한과 책무를 지칭하여(37쪽) 공공 병원 의료진의 사명의
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국가 보건성과 지역 사회 간 매개 역
할을 하는 이 지구 병원에서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통치 잠재성
을 활성화하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32쪽). 이는 한편으로는 병원 원장
의 노력으로 정부 뒷선의 실패에 맞서 사람을 살리는 임무를 대행할 자원과 기
술을 확보하는 식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사들의 정기적인
가정 순회 방문을 통해 지역 사회로부터 통치와 돌봄의 정당한 책임자로서 인
정받으려는 시도로서 드러나기도 한다.

돌봄과 통치가 동전의 양면을 구성한다는 데서 돌봄의 첫 역설이 발생하는

데, 환자들이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국가의 종속된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장(Patient Waiting)에서 다루는 병원의 일반 환자들의 서사와 경험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고마운 선물이자 무거운 빛으로서 드러난다는 데서 명료해진다. 어떤 이들은 “30바트짜리 의료서비스”라는 기치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감행한 탁신 수상에게, 어떤 이들은 너그러운 왕실 자선 기부금을 국민의 의료보전에 쏟아부은 부미볼 국왕에게, 각자 공을 돌리는 상대는 다르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는 보살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과 채무의식은 정치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공유되는 것이었다.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돌봄은 궁극적으로 되값을 수 없는 빛이어서 수혜자를 옴아매지만, 저자는 이와 같은 위계적인 관계에서의 돌봄이 환자들 스스로 보살핌을 마땅히 받을 주체(subjects of care)로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유도되는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즉 국민의료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환자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보이면서 돌봄의 위계적인 선물과 채무 관계에 스스로를 종속시킬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은근하고 끈질긴 기다림으로, 감히 나서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Patients must be patient)”(40쪽)는 명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의료진이 차마 무시할 수 없도록 아픈 몸의 현존을 알리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힘든 별이에도 일급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병원비를 부분적으로나마 갚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저자는 그러나 환자들의 실천을 복종이나 저항의 이분법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국가의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부담을 견뎌내는 과정으로서 보아야 한다면서, 돌봄의 양면성을 강조한다.

돌봄의 양면성은 4장(Premature Life and Death)의 신생아집중치료실 현장에서도 부각된다. 부모와 격리되거나 절연되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놓여진 유약한 생명들을 돌보는 일을 위임받은 간호사들의 어깨는 무거운 수밖에 없는데, 저자는 섬세한 민족지적 감수성과 시선으로 이들의 헌신적인 돌봄에는 개입(engagement)과 거리두기(distancing)가 동시에 작동함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세상에 막 도착한 어린 생명을 환대하며 돌봄의 관계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간호사들의 정성어린 손길이다. 이 손길들이 아이를 산소호흡기에 연결하고, 링겔 주사를 뽑고, 수시로 심장 모니터를 확인하고, 가슴을 문질러 주고, 기저귀를 갈아

준다. 동시에 아이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때,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도 이 손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와 같은 전환이 어떤 생명정치적 계산에 의해 선을 긋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연장선상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산소호흡기를 떼 뒤에도 간호사들은 아이를 살피면서, 목욕을 시키고, 몸이 따뜻하도록 담요를 덮어 주고 복사 온열기를 틀어 준다. 산소호흡기를 떼고서도 쉬이 숨을 거두지 못하는 한 아이를 안타까워하면서 “아기가 업보를 다 치를 때까지 못 떠나네요”(84쪽)라는 간호사의 말에서는 자연스레 죽음이 업보의 법칙에 따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돌봄을 특징짓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숨을 거두었을 때는 정성스레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고 새 옷을 입혀 담요와 함께 상자에 넣어 장지로 배운다. 이처럼 아이를 살리려는 개입이 아이의 몸을 생의학적이며 사회적인 돌봄의 관계망으로 끌어들인다면, 거리두기는 아이가 평온하게 업을 치르고 현생을 넘어서 윤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가장 창의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유도’의 시도들이 두드러지는 것은 산 임신부들의 경험에 초점을 둔 3장과 5장이다. 3장(Careful Inscription)에서는 태국에서 태어날 아이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와 바람으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산전검진에 임하는 임신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법적 지위가 불확정적인 이들에게 있어 산전검진은 흔히 태국의 의료체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되는데, 이는 자신뿐 아니라 태어날 아이의 현존을 태국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으로서도 여겨지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출생증명서는 물론 산전검진기록부, 병원 카드, 영수증, 진료의뢰서, 산후우울증 설문지 등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은 아이의 정당한 성원권을 마련해 주기 위한 기록들로서 각별히 신경써서 수집되고 보관된다. 한편 5장(Vulnerability and Nurturance at Home)에서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산모들이 가난하고 고단한 살림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현장을 접하게 된다. 출산 직후 자신과 아이 모두 매우 취약한 시기에 온갖 구조적인 폭력에 노출되면서도, 금욕적인 산후조리와 채식요법으로 덕을 쌓으려 노력하거나, 수시로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아픔을 호소하는 등 굳건히 주변의 모든 가능한 자원과 노력을 동원해 삶을 꾸려 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자가 논하는 ‘돌봄 유도하기’의 행위성과

저력을 실감하게 된다.

드디어 본론의 마지막 6장(Spirits and the Circuitry of Care)에 이르러서는 국경과 시공을 뛰어넘는 영적인 돌봄의 관계망으로 들어서게 된다. 영들을 소환하는 의례 기술(ritual technology)은 특히 의술이 실패한 지점에서 더욱 빛을 발휘하는데 이는 말기신부전으로 목숨을 잃은 산 이주여성 우안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병원에서 외면당하고 인공투석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려보내져 고통스럽게 앓다가 죽은 그녀의 혼령에 시달리던 아들은 두 달치 벌이에 달하는 사령제를 치르고 어머니를 모시는 제단을 차리고서야 평온을 찾았다. 한편 의례를 주재한 ‘주 아버지(*jao phob*)’로 불리는 무속인은 산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신력이 높다고 명성이 높은 이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치앙마이 출신의 젊은 태국인이라는 점이다. 저자에게 자신의 전생이라며 역사책 속 산 왕국의 한 왕자 사진을 보여 주는 그는 어린 시절 온갖 고통과 사고에 시달려 자살을 하려다가 이 정령을 받아들인 뒤로 무속인이 되었다고 한다. 오래된 산 왕국의 정령이 태국인의 몸을 빌려 이 먼 땅에서 고통받는 산 이주노동자들을 어여뻐 보살피게 된 데에는, 그만큼 이 시공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을 빌려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전한다.

이처럼 돌봄의 유도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 동맹 관계 속에서 생명과 삶을 유지하는 힘들을 생성시키고 또 새롭게 분배한다. 여기에는 의술과 의례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이 동원되며, 또한 제단, 산소호흡기, 음식, 서류 등 각종 사물이 매개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물질적인 상호작용은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등이 수반되는 정동적인 교류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한없는 기다림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전생의 업을 치르며 다음 생을 위해 덕을 쌓고, 과거의 정령을 불러내어 현세에서의 보호와 축복을 비는 등 시간적인 도약을 시도하고, 병원과 집, 태국과 미얀마 등 각종 공간적인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지금, 이곳에서의 속할 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책은 이처럼 병원에서 마을로, 의료진에서 환자로, 현세에서 전생과 내세로 시야를 넓히면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인간들이 돌봄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성과 존재 자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면밀하게 제시한다.

책은 그와 동시에 돌봄의 유도에도 행위자들에 따라 그 효력(efficacy)에 위계

가 있음을 놓치지 않고 보여 준다. 기다림의 끝에 필요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환자는 알기 힘들며, 산모가 정성스레 보관한 출생관련 서류들이 이들의 희망대로 아이의 시민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감정적인 지원(*kamlang jai*)은 간호사들에게 위임되는 반면, 산소 호흡기를 계속 유지할지, 처방서와 진료의뢰서를 내줄지 여부는 의사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인간이 정령에게 빌 수는 있어도, 누구의 몸으로 강신할지는 정령이 정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여러 제약과 고통에 굽히지 않고 돌봄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돌봄의 정치가 진보함을 지적한다(146쪽). 돌봄의 유도가 여러 층위에서 상충하는 의도와 힘들이 경합하는 불확실성 가운데 꾸준히 자신의 취약한 현존을 알리는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만큼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잠재성도 지닌 것이라는 사실이 저자의 논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저자의 희망적인 결론에 동조하면서 그냥 책을 덮기에는 2장이 마음에 걸린다. 본문에서 남을 배려하고 삼가는 마음(*kreng jai*)이 유독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도 이 2장에서인데, 일본에서의 의료권과 생존권 운동에 익숙한 서평자로서는 이 마음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을 무시하기가 힘든 것이다. 빗지는 것 같고 눈치 보여서 감히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본에서는 “복지의 신세는 지고 싶지 않다”는 거부로 이어지거나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나는 복지 타먹는 저 치들과는 달라”라는 식의 멸시로 나타나기도 해서, 의료와 복지에의 접근권을 주장하는 활동가들에게 큰 난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책의 2장에서는 이 마음이 주로 환자들의 조용하고도 끈질긴 기다림으로 발현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병원을 아예 찾지 않는, 의료권 자체를 지레 포기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않을까? 더 나아가 자신이 국가의 세금과 의료 부담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는 자부어린 사명감으로 이어지는 않을까? 혹은 질병이나 장애로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이 값을 수 없는 빚만 불러 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수치심과 자책이 자기파괴로 이어지는 않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책의 가장 희망적이며 창의적인 돌봄의 유도들이 산 임신부와 신생아들의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는 점을 곱씹게 된다. 어쩌면 국가의 주변부에서 가장 취약하지만 아직 성원권이나 인격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도가 더 급진적인 변혁의 잠재성을 지닌 것은 아닐까. 2장에서 유독 국가의 자명한 시민으로서 성원권이 이미 인정된 태국인들의 서사에서 수혜자로서 사의와 채무의식이 두드러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것인가? 3~5장이 상호 인정과 의무 관계가 미약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돌봄의 유도가 새로이 상호의존성들을 생성하고 다양한 삶의 형식들을 가능케 함을 보여 준다면, 2장은 국가와의 관계가 이미 중층결정된 구성원들에게 있어서의 유도의 역학은 이와는 다른 이론적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저자가 논한 돌봄과 통치의 관계를 되짚어 보게 된다. 이는 행위자들이 돌봄의 논리에 포섭되는 만큼, 돌봄을 줄 의무와 돌봄을 받을 자격이 결부되어 그들을 속박하는 명제로 작동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때에 따라서는 누가 누구를 돌보아야 하는 지가 생명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묘하게 역전되기도 함은 서평자가 거주하는 영국에서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전국적인 표어가 된 “Save the NHS(국가보건서비스를 구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은 NHS이지만, 2차대전 후 국가 최대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보루라고 존슨 총리에서부터 일반시민들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모으게 된 것이다. 3월 중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직후에 정부가 2만 5,000명의 입원환자들을 요양원으로 퇴원 지침을 내린 것도 NHS를 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여진다. 코로나 1차 파동 시 NHS를 응원하는 무지개 그림들이 곳곳에 응원구호와 함께 걸려지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마다 NHS에 대한 감사의 박수 세례 등 국민이 하나되는 듯한 의례가 펼쳐지는 한편으로, 병원에도 차마 가지 못하고 방문객도 사절하고 문을 걸어 잠근 요양원들에서 수만의 목숨이 스러져 갔다(Amnesty International 2020 참조). 지난 3월에서 9월간 요양원과 집에서 예년 대비 초과 사망자 수(코로나 확진 사망을 포함)가 병원에서의 초과사망자 수의 4배나 되었다고 하니, 생명정치적 계산에 의한 선별(triage)만큼이나 자숙과 체념이 초래하는 파괴력을 절감하게 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 이에 더해 NHS 의료진과 직원들의 사망률은 어떠한가? 원래 노동력 부족을 겪는 NHS에는 외국인 채용 비율이 높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NHS 의료진 중 비백인, 이민자 출신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이 눈에 띈다(Cook et al., 2020). 돌봄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대로 ‘상호적 되어감’의 과정이라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과정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함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나서서 희생을 자처함을 의미하기도 함을 영국의 코로나 사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말한 대로 돌봄이 삶을 지탱하는 힘들을 생성시킨다고 했을 때, 돌봄의 관계가 죽음을 앞당길 수도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혹은 책의 4장에서 보이듯 조용히 죽음을 초대하는 거리두기 역시 돌봄의 일부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돌봄의 관계가 지탱하는 삶이 반드시 생물학적인 생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티븐슨(Stevenson, 2014)이 주장한 ‘생을 비껴난 삶(life beside itself)’에 대한 안목일지도 모르겠다. 같은 제목을 단 민족지 저서에서 스티븐슨은 캐나다의 복지국가가 이누이트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률을 보던 당국의 당면과제로 삼고 자살방지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현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서 당국의 ‘네가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살아만 달라’는 식의 의명의 돌봄은, 거꾸로 자살할 것이 뻔히 예상되지만 죽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 이들의 생을 불모로 잡는다고 지적한다. 이누이트 청소년들에게 삶은 생을 비껴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살한 친구를 만나는 꿈을 꾸며, 죽은 삼촌이 까마귀가 되어 되돌아왔다고 가리키고, 자살하고 싶은(suicidal) 게 아니라 단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한다. 스티븐슨은 따라서 이들의 삶을 진정으로 돌본다는 것은, 이 생을 끝내고 싶다는 이들의 욕망 또한 품어 안음을 의미한다는 도발적인 제안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게 된다. 생을 비껴난 삶을 돌보는 관계들은 어떠한 정치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까?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인 지금처럼 생물학적인 생이 정치경제적인 계산으로 가치절하되거나 혹은 그 희생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때, 돌봄은 어떤 정치적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다시 책의 결론으로 돌아가 보자. 저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책을 마무리한다.

유도(elicitation)의 정동적, 도덕적, 정치적 결과가 감지되고, 명시되며, 증폭될 때 돌봄과 분배의 긍정적인 정치가 가능해진다. 이 책에서 다룬, 삶을 지탱하는 관계들을 공고히 하는 원천, 기술 그 노력들은 때로는 부족할지언정, 여러 삶의 형식들을 키

워내기도 했다. ... 돌봄의 일상적인 성취와 실패에는 정치적 잠재성이 내재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잠재력(capacity)을 재조율할 때 새로운 연결, 책임과 의무의 회로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148쪽).

이 새로운 돌봄의 분배 정치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불지피며 살려 나가는 것은 단지 저자가 아니라 우리 독자들의 몫이기도 할 것이다.

투고일: 2020년 12월 12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4일

참고문헌

- 서보경. 2008. “태국 에이즈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 운동.”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Amnesty International. 2020. “As If Expendable: The UK Government’s Failure to Protect Older People in Care Hom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UR 45/3152/2020.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document/?indexNumber=EUR45%2f3152%2f2020&language=en> (검색일: 2020. 12. 5).
- Cook, Tim, Emira Kursumovic, and Simon Lennane. 2020. “Exclusive: deaths of NHS Staff from COVID-19 Analysed.” *HSJ*, 22 April 2020. <https://www.hsj.co.uk/exclusive-deaths-of-nhs-staff-from-covid-19-analysed/7027471.article>(검색일: 2020. 12. 5).
- Mol, Annemarie. 2008. *The Logic of Care: Health and the Problem of Patient Choice*. Routledge.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 “Coronavirus (COVID-19) in 10 Charts.” ONS, 24 September 2020.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conditionsanddiseases/articles/coronaviruscovid19in10charts/2020-09-24>(검색일: 2020. 12. 5).
- Stevenson, Lisa. 2014. *Life Beside Itself: Imagining Care in the Canadian Arctic*. 1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